

“로컬푸드’ 판매하는 생협 아시나요”

내고장농산물 직거래 판매
신선·양질제품 저렴 인기
입소문 타고 회원수 급증



채소값 폭등으로 생협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면서 아이쿱 빛고을생협 자연드림 운영점을 찾는 소비자들의 발길이 늘고 있다. <광주일보 자료사진>

대거 늘어 준비했지만 회원수가 급증하면서 1인당 30kg으로 제한해서 판매중”이라고 말했다. 생협에 농산물을 납품하는 농민들도 직거래를 통해 안정적으로 판로를 확보하면서 농가수익도 증가하고 있다. 생협인 ‘한살림’ 광주에 채소류를 납품하고 있는 ‘해남참살공동체’ 소속 농민인 박우석씨는 “출고가가 3년 동안 비수했는데 올해는 유가상승으로 인해 물류비가 증가하면서 부득이하게 출고가를 10% 가량 인상했다”며 “계약재배를 하기 때문에 생산량과 소비량이 거의 비슷해 지금까지 손해를 본적은 없었다”고 말했다. /이은미기자 emlee@kwangju.co.kr

지역에서 생산된 신선하고 질 좋은 농산물인 ‘로컬푸드’를 직거래 방식으로 판매하는 ‘생활협동조합’에 대한 관심이 늘고 있다. ‘로컬푸드’는 장거리 운송을 거치지 않고 인근 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생활협동조합(이하 생협)이 운영하는 유기농 매장 등에서 주로 판매되고 있다. 생협이 소비자들로부터 주목 받고 있는 것은 최근 채소값이 폭등할 때 유통단계를 줄인 직거래 방식으로 생산자는 제값을 받을 수 있었고 소비자들은 싼값에 신선하고 질 좋은 농산물을 안정적으로 구입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소비자들이 조직한 생협은 생산자와 계약재배 방식으로 미리 공급량과 가격을 결정하기 때문에 시장 가격에 거의 영향을 받지 않고 안정된 가격으로 공급이 가능하다. 조합비 등으로 물류비용 같은 운영비만 떼어낼 뿐 중간마진을 챙기

지 않기 때문에 소비자들은 유기농·친환경 농산물을 일반 농산물보다 싸게 살 수 있다. 실제 지난달 배추 한 포기 1만 원을 넘나들 때 아이쿱생협은 포기당 1600원, 상추·무·대파도 시중의 오른 가격과 상관없이 인상전 가격에 채소를 판매했다. 생협이 채소값 파동 이후 값싸고 질 좋은 농산물을 안정적으로 공급 받을 수 있다는 입소문이 나면서 회원수도 크게 늘고 있다. 현재 아이쿱생협연대 광주지회 소속 회원수는 5600여명에 달한다. 특히 9월 이후에는 평소보다 1.5배나 많은 회원들이 가입을 하고 있는 상태다. 아이쿱빛고을생협 이희한 이사는 “채소값이 폭등하면서 생협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이 크게 증가했다”며 “이달 29일까지 진행되는 김장배추 예약판매를 위해 물량을



한국산업단지공단 호남권본부 강달수(맨 앞) 본부장 등 직원들은 25일 광주 사이언스밸리(첨단산단) 입주기업인 명신메디칼을 방문, 기업 현장체험 활동을 했다. 호남권본부는 입주기업의 애로를 직접 체험하고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했으며, 앞으로 월 1회 지속적으로 기업 현장체험 활동을 실시할 계획이다. /박정국기자 jwpark@kwangju.co.kr

“光銀 50+1주 이상 지분매각·합병” 유지

이달내 우리금융 매각 입찰공고...민영화 본궤도

정부가 이달 말 우리금융지주의 매각 입찰공고를 내고 민영화 작업에 돌입한다. 25일 공적자금관리위원회 등에 따르면 예금보험공사는 지난 20일 매각 주관사의 실사가 마무리됨에 따라 오는 29일 공자위 전체회의를 거쳐 우리금융 매각 입찰공고를 내기로 했다. 분리매각하기로 한 광주은행과 경남은행은 7월 말 민영화 추진방안 공개시 발표된 대로 ‘50+1주 이상의 지분 매각이나 합병’ 방식을 제시할 계획이다. 매각방식은 당초 밝힌대로 공개경

쟁입찰에다 일정 수준 이상의 지분매각 또는 합병을 유지하되 정부가 보유한 우리금융 주식 56.97%의 과반인 28.5%를 최소입찰 참여규모로 제시할 것으로 알려졌다. 공자위는 한 달가량 입찰을 받은 뒤 12월께 복수의 예비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는 예비입찰을 거친 뒤 내년 1·4분기 중 우선협상대상자 1곳을 선정하고 상반기에 민영화를 완료할 계획이다. 정부의 민영화 의지와 달리 시장 상황은 다소 불투명한 형국이다. 인수전에 눈독을 들이려는 주체들이 얼마나 실행을 마련하고 우군을 형성했는

지 회의적인 시각도 없지 않다. 광주은행 인수에 가장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광주·전남 상공인들로 구성된 ‘광주은행인수추진위원회’는 인수자금 마련에 자신하고 있지만 자금확보 방안 등에 대한 계획을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고 있다. 경남은행은 대구은행과 부산은행, 경남지역 상공계 등이 참여 의사를 보이고 있는 상태다. 우리금융과 지방은행 인수에 복수의 경쟁자가 나타나지 않을 경우 경쟁을 통해 인수 주체를 결정하는 이른바 ‘유효경쟁’ 자체가 성립하지 않아 매각 작업이 시작부터 암초를 만날 수 있다는 우려도 없지 않다. /이은미기자 emlee@연합뉴스

제조업 생산·수출 ↑...지역경기 호조

명품 판매 늘어 소비 증가세
고용은 부진·건설활동 주춤

최근 광주·전남지역 경제는 제조업 생산과 수출 증가, 소비 호조를 보이고 있으나 고용은 여전히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 발표에 따르면 8월 중 광주·전남의 제조업 생산은 자동차 수출 호조 등에 힘입어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12.9% 증가해 전달(13.0%)과 비슷한 수준으로 증가세를 이어갔다. 광주지역은 자동차(+131.5%), 기타기계장비(+117.7%) 등의 호조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4.2% 증가했으며 전남은 식료품(-14.0%), 금속

가공(-42.3%) 등의 부진으로 정체(0.0%)를 보였다. 수출도 증가세를 지속했다. 광주지역은 자동차 증가폭(43.9%→3.7%)이 축소하면서 증가세가 둔화된 반면 전남지역은 철강제품(+49.6%), 석유제품(+36.7%) 등 대부분 업종에서 높은 증가세를 보이면서 지역 수출을 이끌었다. 소비도 증가세를 보였다. 8월 중 대형소매점 판매는 백화점의 명품·화장품 판매 증가로 꾸준한 증가세(7월 +6.7%, 8월 +5.4%)를 유지했으며, 9월중 소비자자신지수(111)도 전달(113)보다 소폭 하락했지만 여전히 기준치(100)를 웃돌았다. 하지만 9월 중 고용은 희망근로사업 축소 등의 영향으로 부진을 면치 못했다. 비농림어업 취업자 수가 8월 전달보다 2만6000명이 줄어든 데 이어 9월에는 2만4200명이 감소했으며

서비스업 취업자수도 큰 폭의 감소세(-4만3천400명→3만800명)를 이어갔다. 실업률은 8월 2.9%에서 2.3%로 소폭 하락했다. 건설활동의 상승세도 주춤했다. 8월 중 건축착공 면적의 증가폭이 축소(26.8%→11.0%)되고 7월 4900명에 달하던 건설업 취업자 수는 8월-500명, 9월-4100명 등으로 감소폭이 확대됐다. 또 8월말 현재 미분양아파트는 신규분양 부진, 건설사 합인 분양 등의 영향으로 전달보다 536호 감소한 5616호를 기록했다. 9월중 어음부도율이 하락했지만 제조업체들의 자금사정BSI는 악화된 것으로 조사됐다. 9월중 어음부도율은 전달에 비해 0.11%포인트 하락한 0.13%를 기록했다. /이은미기자 emlee@kwangju.co.kr

기업 신용보증 재심의
심사시스템 개선키로

신용보증기금은 25일 이미 보증을 거절한 적이 있는 기업에 재심사 기회를 부여하려고 운영하는 재심의위원회의 심사시스템을 개선하기 위해 외부위원 비중을 높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현재 재심의위원회는 신보의 보증 사업부문을 상임이사를 위원장으로 내 부위원 3명과 외부위원 3명으로 구성돼 있으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을 통해 의결하는 구조이다. 신보는 그러나 이런 구조에 대해 그동안 공정성과 전문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문제제기가 잇따라 이번에 외부위원 수를 1명 더 늘리기로 했다. 신보는 “보증 거절업체에 대한 기회균등과 패자부활 측면에서 재심의 위원회에 외부위원 수를 내부위원 수보다 1명 더 늘렸다”며 “보증을 신청한 모든 업체가 이해할 수 있는 공정한 심사시스템을 갖추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지역내 신성장동력 확보에 노력”

남용우 신용보증기금 호남영업본부장



“지역 중소기업에 대한 신용보증 지원을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5일 취임한 남용우(54) 신용보증기금 호남영업본부장은 “창업 및 미래성장동력 중소기업, 설비투자 중소기업 등에 보증 지원 역량을 집중해 지역의 신성장동력을 확보하고 신규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제주 출신인 남 본부장은 제주대를 졸업하고 지난 82년 신용보증기금에 입사, 제주지점장, 관리기획실장을 거쳐, 인천중 앙지점장, 광화문지점장 등을 역임했다. /이은미기자 emlee@kwangju.co.kr

출생아수 6개월째 증가
이혼은 8개월 연속 감소

출생아 수가 6개월 연속 증가하고, 이혼은 8개월째 감소세를 이어갔다. 25일 통계청이 발표한 월간 인구동향에 따르면 지난 8월 출생아 수는 약 3만8300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2100명(5.8%) 증가해 6개월 연속 증가했다. 시·도별 출생아 수는 경기, 서울, 부산, 경북, 경남 등 9개 시도는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해 늘었고 나머지 시도는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 8월 이혼건수는 9700건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200건(-2.0%) 줄어 8개월째 감소세가 지속됐다. /연합뉴스

나주의 얼
나주의 미래

2010
나주 영상강문화축제
Naju Yeongsangang Cultural Festival 2010

| 일시 | 2010. 10. 29(금) ~ 10. 31(일) 3일간
| 장소 | 금성관 일원

| 대표 프로그램 | 나주목사 부임행차, 창작마당극 <김천일>, 청소년 페스티벌, 시민한마당노래자랑, 나주사랑 상가축제
| 주최 | 나주시 | 주관 | 나주시지역축제추진위원회 | 후원 | 전라남도 한국관광공사